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회 성료



제5회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회(PRINKOR 2009)가 지난 8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4일간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13개국 103개사가 참가해 기존의 특수인쇄 영역은 물론 더욱 확대되고 다변화된 특수인쇄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참가업체들은 디지털인쇄기, 스크린인쇄기자재, 제책설비기자재, 인쇄재료 및 OA기기, RFID인쇄 관련기기, 특수인쇄기분야, 포장관련기기 등 특수인쇄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특수인쇄가 미래 인쇄산업을 주도한다', '디지털인쇄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등 최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특수인쇄홍보관, 인쇄문화관이 운영되었다.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이슈의 컨퍼런스

금번 전시기간 동안 '특수인쇄가 미래 인쇄산업을 주도한다', '디지털인쇄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스크린인쇄기법을 이용한 EL디스플레이 기술과 적용'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최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인쇄관련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인쇄문화관 설치 운영

본 전시장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인쇄문화관을 설치 운영하여 '직지' 등 우리나라의 옛 인쇄방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인쇄했던 방식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한눈에 인쇄공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내 우수 인쇄물 수상작을 전시, 소개하여 현재의 우리의 우수한 인쇄의 현주소를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인쇄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스크린인쇄 특별관

스크린인쇄를 통한 특수인쇄물들을 전시하여 다양한 인쇄의 영역을 제시하고, 특히, 전자산업과 연계된 EL 인쇄는 인쇄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어 인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보여주었다.

사이버전시회, 등록시스템

PRINKOR 2009는 전시회 참가업체의 광범위한 홍보와 참관인 정보자료를 위하여 PRINKOR 홈페이지(www.prinkor.com)를 운영하여 전시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시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전자명함카드(RF카드) 등록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RINKOR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등록을 하여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시장 입장을 위한 등록시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바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편리한 전시회 관람을 가능하도록 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